

'트레이드시 선수와 사전 협의 거쳐야'

문체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기로
임의해지, 3년 경과 후 자동 해제토록 설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시권(퍼블리시티권), 분당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시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시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트레이드시 선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서

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임의탈퇴는 '임의해지'로 변경된다. 그동안 임의탈퇴된 선수는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이 불가능해 강력한 징계 수단으로 사용됐다.

문체부는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의·실업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장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율러 문체부는 기존 규약·규정에만 언급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을 표준계약서에서는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



전주시민축구단이 서울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오는 5일 오후 4시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K리그 1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여주FC경기에서 전주시민축구단 장문원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리그 3연승 도전"... 공수 변화 예고

전주시민축구단, 내일 서울 노원유나이티드와 K리그 14R 경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50명 선착순 입장 가능·네이버 생중계

전주시민축구단(감독 양영철 이하 전주)이 서울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연승에 나섰다.

전주는 오는 5일 오후 4시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서울유나이티드와 K리그 1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지난 5월 30일 서울중랑축구장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둔 전주는 이날 승리로 리그 3연승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특히 전주는 시즌 초반 부상자들이 많아

고전했지만 최근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주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현재 3승 9패(승점 9점)로 14위를 달리고 있어 상위권 진입을 위해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날 승리를 위해 전주는 공수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공격에서는 오태환과 서세경이 상대 골문을 노리고, 중원은 김탁균과 김민수 변

상진이 공수를 조절하면서 상대 골문을 노린다.

수비에는 김태연과 신동혁, 장문원, 지병우 전성진이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골문은 조대영이 지킨다.

양영철 감독은 "우리 팀은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민첩 공격적인 축구로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선보이겠다"면서 "K리그 상위권 진입을 위해 매 경기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선착순으로 50명만 입장 가능하며, 경기는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된다.

/장은성기자

'태권 고수로부터 격파·폼새 배우리'

태권도원 100배 즐기기
야외 무료 체험 내일부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태권도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야외 체험 프로그램인 '태권도원 100배 즐기기'를 6월 5일부터 선보인다.

태권도원 100배 즐기기 콘텐트는 야외에서 태권도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다. 전통 한옥양식의 명인관과 태권전 등 태권도원 곳곳에서 6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펼쳐지고 6월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진행된다.

먼저 명인관에서는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인의 태권 고수와 만나는 태권도 체험이 펼쳐진다. 태권 춘향과 태권 몽룡 등 태권 고수들로부터 격파와 폼새, 호신술, 태권 전통놀이 등을 배우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말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태권전 앞마당에서 태권 마당극, 태권 춘향 출두요를 진행한다.

국악과 어울려 신명나는 마당극 형식의 공연으로 특급 태권도 실력을 자랑하는 출연자들의 멋진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관객들은 출연진들이 이끌어가는 태권 마을의 일원이 되어 태권도를 배우고 번서포를 물리치는 등 마당극에 동참해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태권도 체험과 태권 마당극은 태권도원 입장객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



고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외 체험할 수 있다.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별초롱 태권야행'은 태권도원 야

류현진, 내일 휴스턴전 출격 올해 첫 세일런필드 등판

류현진(34·토론토 블루 제이스)이 시즌 6승 사냥에 나선다.

류현진은 5일 오전 8시7분(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 세일런 필드에서 열리는 2021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5승2패 평균자책점 2.62를 기록 중인 류현진의 6승 도전 무대다.

올해 세일런 필드 등판은 처음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더닝 1D 볼파크를 올 시즌 임시 홈 구장으로 쓰던 토론토는 6월부터 세일런 필드로 옮겨왔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다에 연고를 두고 있는 토론토는 지난해부터 홈 구장인 로저스 센터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에 입국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지 않으면서 토론토는 지난 시즌에도 세일런 필드를 홈 구장으로 사용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홈에서 나온 5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10의 성적을 내며 세일런 필드에 좋은 기억을 남겼다.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다. 류현진은 5월에 나온 5경기에서 4승을 따내며 평균자책점 2.64를 수확했다. 패전은 한 번도 없었다.

휴스턴과는 첫 만남이다. 2013년 빅리그 데뷔 후 한 번도 휴스턴을 상대한 적이 없다.

한편 5일 또 한 번의 '코리아 데이'가 성사됐다. 이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은 신시네티 레전즈에 선발로 출격한다.

김광현은 이번 시즌 1승과 평균자책점 3.65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연패 중에 있어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뉴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전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통역 자원봉사 모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역 자원봉사 700여명 키운다

전북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도 국제교류센터 등과 협약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호)는 3일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선), 전라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협회장 이지훈)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통역 자원봉사 모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역 자원봉사는 아태마스터스대회 기간 동안 주로 출입국 지원, 종합안내소 및 각 경기장 등과 IMGA 이사 등 해외 VIP와 참가자들이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을 지원

할 것이며, 봉사자는 700여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매년 자체별도 공공의교단 모집·양성을 통한 인력풀을 통역 자원봉사로 연계하고, 도내 대학 등 홍보를 통한 모집 및 소양·직무교육 시·균형여사 및 다문화가족 중 통역 가능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강호 사무총장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참가하는 대회로 3개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참가자들의 불편함 없이 빈틈없는 언어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누구나 참여 가능'... 임실군, 양궁스포츠클럽 신규회원 모집

임실군 양궁스포츠클럽에서는 선수 출신 전문 지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궁의 이론과 자세잡기·활쏘기 등 실전 양궁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주 2회(평일, 주말) 학생반, 성인반 선수반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양궁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궁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습 장소는 박성현 그린드래펄 달성 기념으로 2018년 10월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

라북도 국제양궁장에서 상시 진행되며 접수 방법은 전화(063-642-3365)나 직접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로서 양궁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임실군 양궁스포츠클럽은 양궁장파 선수 출신의 지도자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체육인들의 심신을 단련시키고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은 물론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